



성악 부문 최고상 박소현(무안남악초5).



바이올린 부문 최고상 남하승(광주 윤리초4).



설장구 부문 최고상 박해민(완도 노화중앙초6).



첼로 부문 최고상 조민우(광주송원초4).



성악 부문 최고상 김승준(광주송원초2).

훨훨 날아라! 예술 꿈나무... 미래로, 세계로



소망의 몸짓 한국무용창작 부문 최고상을 받은 광주 금호중앙여고 3학년 장다영 양이 간절한 소망을 형상화한 몸짓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예술 꿈나무들의 등용문' 제60회 호남예술제가 지난 27일 광주학생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제60회 호남예술제 최고상 작품 발표회'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올해는 음악, 무용, 국악, 미술, 작문 등 5개 부문에 모두 1만여 명의 예술 꿈나무들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미래 한국 예술계를 이끌고, 세계 무대를 누빌 호남예술제 수상자들의 '최고상 작품 발표회' 모습을 화보로 엮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백조의 비상 현대무용 부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광주수피아여고 3학년 강리원 양이 한마리의 백조처럼 날아오고 있다.



신나는 힙합 무빈업댄스스튜디오의 신나는 힙합공연 모습.